

## 평화통일 신학의 생태 신학적·윤리적 토대 구축에 관한 연구: '생명의 숲' 신학 모색과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이창호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

### I. 들어가는 말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야말로 휴전 상태일 따름이다. 북핵 문제는 진행형이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체제에 대한 부정 등이 둘 사이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부정할 수 없다. 실로,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분단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이바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들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기독교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 집행 과정을 기독교 가치와 전통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독교회와 신학은 오늘날 인류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로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성과 다원성(혹은 다양성)을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고 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온 인류가 윤리적으로 공감하는 공동의 기반을 모색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거대한 환경적 위협 앞에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생명(들)'의 위기의 현실을 직시할 때,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을 아우르는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기반 모색은 더욱 절실한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해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 윤리 곧 생태적 세계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업이라 하겠다.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신의 은총을 통한 '자기 초월'에서 찾는다. 궁극적 실재와 타자와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내어준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인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인간은 자신과 타자 그리고 피조 세계의 보존과 혁신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자로서의 인간과 다른 생명들과의 공존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생태적 세계 윤리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 시도,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의 생명성 강조, 전체로서의 생명 세계에 대한 통전적 유기체적 이해 등의 중요한 생태학적 주제들을 제기하고 또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기독교 생태 신학과 윤리의 목적론적 관심은 평화에 있다. 곧 자연과 인간 사이의 평화 그리고 우주적 생명 세계(혹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들 사이의 평화를 일컫는다.

생태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세계적 현실 인식과 신학적 윤리적 전망은 한국 기독교회의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이 추구해야 하는 과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 준다.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한국 기독교회의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은 남한과 북한의 민족적 정치사회적 평화통일 뿐 아니라, 좁게는 한반도 또 넓게는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생태환경의 복원을 선결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적 관점에서 남과 북은 둘이 아니라 하

나이기에 한반도의 생태환경적 평화공존은 자명한 목적이 되며, 이 목적의 추구는 남과 북의 전체적 생태 복원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의 산림의 황폐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3인간개발지수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북한의 전체 산림 면적의 31% 곧 820만 헥타르에서 554만 헥타르로 감소했고, 불행하게도 감소의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산림의 황폐화의 주된 원인은 경작지와 댐감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이다. 생태계의 보고이며 홍수와 토양 유실을 막는 기후변화 대응의 원동력인 산림의 훼손은 심각한 생명 세계의 파괴와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력의 심대한 약화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라는 생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이므로, 이러한 위기의식과 우려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명 공동체에 대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1999년부터 민간 차원이 시작한 북한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북한 지원과 교류 사업들이 중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생태공동체를 추구하는 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은 남과 북이 환경 파괴나 기후변화 등의 생태환경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과 북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일구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일 운동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삼림협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박경석을 비롯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들이 밝힌 대로, “앞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경제협력은 지난 10년간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으로 삼으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조림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잘 조합하여 남북대화를 여는 그린 데탕트의 열쇠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린 데탕트’ 정책을 평가·성찰하는 데 있어 삼림 부분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겠다.<sup>1)</sup>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남북을 하나로 잇는 생명과 평화의 숲이 조성되어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과 화합의 길로 전진하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적 정치사회적 평화와 통일 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정책을 신학적·윤리적으로 평가하고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밝혀 기독교회와 신자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에 안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생태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평화통일 신학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을 기독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한국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통일 실천을 위한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이 연구의 목적은 평화통일을 위한 생태 신학적·윤리적 토대 마련과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에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연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 정책과 평화 실천을 기독교윤리적으로 평가하고 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과 통찰을 탐색할 것이다. 특별히 평화주의와 정당전쟁 전통으로 대표되는

1) 박경석 외,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산림정책이슈」 제5호 (2013/6)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13), 1.

기독교 평화론으로부터 필자는 남·북간의 평화 정착과 명실상부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기독교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태적 통일 운동의 신학적 토대 마련을 위해 생태적 통일 신학과 윤리를 탐색할 것인데, 필자는 이를 ‘생명의 숲’ 신학이라는 명칭 아래 개념화할 것이다. ‘생명의 숲’을 형성하는 성경의 나무들이 제시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윤리적 명령으로 바꾸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2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중심적 삶 안에서 타자·지향적 실천에 힘쓰라는 명령을 내포하며 에스겔 37장의 ‘나무 막대기’는 갈라지고 찢긴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일군이 되어 살 것을 명령한다. 로마서 11장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시는 신적 역사에 충실하게 응답할 것을 말씀하시며 열왕기상 4장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시고 또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를 통해 우주적 차원에서의 생태적 회복의 이상을 구현하라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듣는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숲’ 신학에 담긴 윤리적 이해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의 의의를 평가하고 기독교 사회윤리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민족적 유대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실천 뿐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민간 부분에서의 참여는 남·북간의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민족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한반도 전체 생명 체계 안에 정상적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는 생태 복원이라는 목적을 생각할 때, 북한과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혹은 우주적) 생명 체계를 좀 더 온전한 생명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동료 시민들과 협력·연대하여 남북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묶고자 하는 ‘그린’ 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생태적 평화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한반도 안에 정치사회적 생태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II. 통일 정책과 실천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를 위한 윤리적 규범 모색

### 1. 평화주의와 정당전쟁 전통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평화론<sup>2)</sup>

#### 1) 평화주의 전통의 평화 이해: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서 고대의 고전들을 중요하게 참고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과 기독교 신학 전통에 입각한 개혁적 사상을 전개해 간다. 기독교윤리학자인 카힐(Lisa Cahill)은 에라스무스의 과업은 “기독교 전통 전체를 정화하기 위해 최상의 인문주의 산물을 핵심적 기독교 교리들에 적용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sup>3)</sup> 교회사가인 베인튼(Ronald Bainton)은 에라스무스에 대해 “평화는 교육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기획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4)</sup>

2) 이 부분은 기독교 전쟁과 평화 전통의 빛에서 한반도 통일 정책과 실천을 성찰한 필자의 논문을 본 연구에 맞추어 다시 전개한 것임을 밝힌다.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2010/12), 244-54.

3) Lisa Sowle Cahill, *Love Your Enemies: Discipleship,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Minneapolis: Fortress, 1994), 153.

4)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 Historical Survey and Critical Re-Evaluation* (Nashville: Abingdon, 1979), 131.

에라스무스는 보편적 이성과 특수한 기독교 계시 모두에 근거하면서 자신의 평화론을 펼쳐 가는데, 그의 평화 사상은 교회 안팎에서 평화주의를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그의 평화 옹호는 무엇보다도 자연 질서와 인간 본성에 의존한다. 야생의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싸움을 즐겨하지 않으며 싸운다 해도 동족과는 싸우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악마적 과학이 만들어낸 기계들’로 동족을 살상하기를 서슴지 않는 인간 종족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야수도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생존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싸울 뿐인데, 인간이 벌이는 치명적 전쟁이라는 것은 “야망과 탐욕, 그것이 아니면 내면의 병적 역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에라스무스는 한탄한다.<sup>5)</sup> 인류에게 전쟁은 본성을 거스르는 곧 부자연스러운(unnatural) 것이다.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삶과 사회는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에라스무스의 답은 분명하다. 인류 공동체에 ‘자연스러움’은 치명적 수단을 통한 물리적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을 평화·친화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에로의 지향성은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다. 에라스무스의 말을 들어 보자. “자연은 인간의 마음 속에 배타적 삶을 혐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사랑하는 지향성을 심겨 두었다. 또한 인간의 심장에 온통 자애로운 애착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sup>6)</sup> 이렇듯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사랑하는 지향성’과 ‘자애로운 애착의 씨앗’이 주어진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전쟁과 같은 상호 파괴적 갈등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곧 하나님은 인간 본성의 설계도 안에 ‘상호간의 친밀한 감정적 교류와 사랑과 우정의 애착 관계’의 인자를 심겨 두셨다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이해이다.<sup>7)</sup> 요컨대, 에라스무스는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본성에 근거하면서 인간은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라스무스는 그의 평화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입각하여 심화시킨다. 그에 따르면, 평화의 추구는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의 집단이나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라면 누구든지 완수해야 할 복음적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8)</sup> ‘평화와 사랑’을 기독교회와 신자의 윤리적 삶의 요체로 역설하는 복음서의 권고들을 도무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에라스무스는 호소한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윤리적 가르침은 전쟁과 폭력이 예수의 사랑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에라스무스의 단호한 입장을 증거한다. 에라스무스의 말을 들어 보자. “어디에서 그토록 많은 완벽한 일치의 맹세들을, 그토록 많은 평화의 교훈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 부른 바, 하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이 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전쟁을 반대할 수 있을까? 예수는 그의 친구들을 복된 평화의 인사로 맞이한다. 제자들에게 오직 평화를 주셨고, 오직 평화만을 남기셨다.”<sup>9)</sup> “오직 온유만을 설교하시고 또 행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5) Desiderius Erasmus, “Letter to Antoon van Bergen,” lines 30-35. James Turner Johnson,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155에서 재인용.

6) Desiderius Erasmus, “Antipolemus: Or the Plea of Reason, Religion and Humanity Against War” (1813), reprinted in *The Book of Peace: A Collection of Essays on War and Peace* (Boston: George C. Beckwith, 1845). <http://mises.org/daily/4134>.

7) 위의 글.

8) Lisa Sowle Cahill, *Love Your Enemies: Discipleship,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154.

9) Desiderius Erasmus, *Dulce bellum in expetis* in *The ‘Adages’ of Erasmus*, tr. by Margaret

따르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성령으로 살고 동일한 성례 가운데 자라가며 또 한 머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로 전쟁에 동참하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말인가?”<sup>10)</sup>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에 근원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의존하면서, 에라스무스는 평화의 추구를 기독교의 도덕적 종교적 의무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라면, 오직 그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따라 평화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구현하고자 힘쓸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평화의 삶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랑 자체로서 오직 사랑의 삶을 살아간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평화를 구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 2) 정당전쟁 전통의 평화 이해: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루터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구분한다. 영적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다. 영적 정부에 속한 이들은 법이나 강제가 필요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세상이 참된 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정부를 마련할 뜻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은 영적 정부 외에 다른 하나의 정부 곧 세속 정부를 세우신다. 이 정부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법적 제도적 질서에 복종하게 하셔서 악행이 제어되고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정치사회적 실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해 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치유하고 악행을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공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속 정부를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맥락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정당한 목적으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 받는다.<sup>12)</sup> 그들이 지켜야 할 수칙(code)에 따르면,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목적들이란 정치사회 공동체의 평화의 유지와 회복,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의 보호 등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대응폭력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루터는 자국민을 불의한 외적의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전쟁이라면<sup>13)</sup> 세속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을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통치

Mann Phillip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327.

10) Desiderius Erasmus, "Letter to Antoon van Bergen," lines 38-44. James Turner Johnson,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157에서 재인용.

11) Desiderius Erasmus, "Antipolemus: Or the Plea of Reason, Religion and Humanity Against War" (1813).

12) "[루터]는 두 가지 별개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으며, 둘 또는 그 이상의 행동 수칙(code)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루터는, 어거스틴이 전쟁에 관하여 통치자, 관리, 성직자, 시민 등 네 부류를 위해 제시한 4가지 수칙을 단순화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루터는 성직자를 전쟁의 책임에서 제외하고, 다른 세 부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통치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는 자신의 과업을 깊은 슬픔으로 수행하는데, 관리는 그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건한 재판장은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며, 법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길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러한 과업은 겉으로 보기에 분노로 가득하고 무자비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무자비해 보이는 그러한 과업에도 온유함이 머물러 있고, 또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온유함이 흘러 나와야 할 것이다'[WA 6, 267].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비통에 찬 어거스틴적 통치자를 만난다. 바로 앞의 루터 인용은 분명히 재판관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군인에게도 적합하다. 왜냐하면 루터는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국가의 경찰 기능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 Historical Survey and Critical Re-Evaluation*, 138-89.

13)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정당전쟁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곧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

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sup>14)</sup> 정치적 정부의 공적 강제력 사용을 정당화하면서, 루터는 이를 기독교 사랑의 윤리의 맥락에서 그 '정당성' 논의를 확장한다. 이에 관한 루터의 논증은 주목할 만하다. “기독교인들도 칼의 힘(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하여 이웃을 섬기며 악한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기독교인이 칼을 들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타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들어 온 공동체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또 백성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 사랑의 일이다.”<sup>15)</sup> 여기서 루터는 ‘이웃을 섬기며 악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온 공동체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면서, 그러한 무력 사용을 ‘기독교 사랑의 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칼뱅은 정당한 목적, 합법적 권위 등 전쟁 시작 전에 숙고해야 할 정의의 기준들의 관점(*jus ad bellum*)에서 루터와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전투원들이 존중해야 하는 정의의 기준들의 관점(*jus in bello*)에서 기독교 정당전쟁론을 심화한다. 무엇보다도 전쟁 수행자들의 태도와 감정 상태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는다. 전투원들은 분노나 증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대로 인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군대 지휘관들은 사적인 감정에 좌우되거나 지나친 폭력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6)</sup> 또한 루터가 사랑의 윤리의 맥락에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였던 것처럼, 칼뱅은 전쟁 상황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 사랑의 윤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불가피한 대응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되, 원수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칼뱅은 “사랑의 법에 따라서 적군이라 하더라도 투항하여 자비를 구하면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sup>17)</sup>고 주장한다. 요컨대, 칼뱅은 모든 동료 인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근간으로 하여, 한편으로 무고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며 다른 한편으로 적군에 대해서라도 ‘사랑의 법’을 따라 최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견지하고자 한다.

루터와 칼뱅은 오직 방어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루터는 침략 전쟁에 대해 분명한 규범적 판단을 내린다. “정신 나간 군주가 머리 속에 전쟁을 기획하고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며 또 칼을 빼든 그 사람은 결국 패

---

쟁 수행’이라는 기준이다.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평화적 수단을 다 써 보아야 한다는 조건을 일컫는다. 침략전쟁을 시작하는 이들은 불의하고 옳지 않다. 몇몇 성경 구절(민 21:22 이하; 신 2:26 이하; 민 14:45; 왕하 14:8 이하; 왕하 22:2 이하; 사 12:6; 왕하 23:29)을 인용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과 무력적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하며 적들과의 합의와 화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모리와 가나안 왕국들에 먼저 평화를 제안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 전쟁을 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이 입증될 것이다.” Martin Luther,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i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46 (Saint Louis: Concordia, 1955), 120.

14)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서 루터는 이 점을 적시한다. “잘못과 악을 징벌하는데 전쟁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고서 누가 전쟁에 나아가겠는가?” Martin Luther,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95.

15) Martin Luther, *Sermons o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i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30, 76.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ed. by John T. McNeill and tr.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V.20.12.

17) John Calvin, *Harmony*, Vol. 3, p. 53. David F. Wright, “War in a Church-Historical Perspective,” *Evangelical Quarterly*, Vol. LVII No. 2(April 1985), 160에서 재인용.

배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sup>18)</sup>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의 강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쟁 수행의 합법적 권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세속 정부에게 ‘평화를 깨고 전쟁을 시작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군을 제어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할 권위를 주셨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9)</sup> 아울러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의 동기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기적 동기,<sup>20)</sup> “돈에 대한 욕심,”<sup>21)</sup> “명예 혹은 영광에 대한 탐심”<sup>22)</sup> 등이 그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칼뱅은 정당한 방어 전쟁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앞에서 본 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한 침략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무고한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칼뱅의 생각인 것이다.<sup>23)</sup> 다만 이것은 그 성질에 있어 ‘방어적인’ 것이어야 하며 칼뱅에게 이러한 전쟁 수행은 ‘필연적인(필수적인)’ 것이다. 불의한 침략에 대응하여 방어의 목적으로 군사력 폭력을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실현에 이르는 것이 전쟁 수행의 본질적 목적이라면 그 전쟁은 정당하다. 정치적 권위는 ‘극한의 필요에 의한 것’(by extreme necessity)이 아니라면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루터와 마찬가지로, 극한의 필요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칼뱅은 역설한다.<sup>24)</sup>

## 2. 기독교 평화론의 관점에서의 통일 정책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제안

### 1) 통일 정책 평가

평화주의와 정당전쟁 전통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평화론으로부터 필자는 남·북간의 평화 정착과 명실상부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운동과 실천을 기독교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sup>25)</sup> 크게 두 가지 유형 곧 ‘정당전쟁 유형’과 ‘평화주의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정당전쟁 유형”에 내포된 윤리적 함의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며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다. 또한 군사력을 쓰기 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전쟁 수행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력 사용의 원인 혹은 의도가 정당해야 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하는 원인이나 의도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평화주의 유형”의 규범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우정과 사랑을 증진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전쟁은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에 배치된다. 또한 전쟁에서 정의로운(just) 동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쟁이 야기하는 악한 결과들과 결정권자의 정당치 못한 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협상이나 중재 등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sup>26)</sup>

이제 이 두 유형을 규범적 판단의 틀로 삼아서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들 가운데 주

18) Martin Luther,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118.

19) 위의 글.

20) 위의 글, 113-18.

21) 위의 글, 131-32.

22) 위의 글, 132-35.

2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20.11.

24) 위의 책, IV.20.12.

25)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256-61.

26) 위의 논문, 255.

요한 몇 가지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응답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 정부 시대로부터 시작해 보자. 1970년대 초, 국제 질서의 변화와 발맞추어, 남과 북의 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통일 운동에 의미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는데, 이는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 단결이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 원칙들은 본래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통일 시도를 배제하며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27)</sup> 궁극적인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선언은 "평화주의 유형"의 시각으로 통일을 보고 추구하는 강한 경향성을 반영한다 하겠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와 통일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가 남과 북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것은 남과 북이 7.4 공동성명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은 '자주의 원칙'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남과 북이 직접적인 교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군의 남한 주둔은 명백하게 이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남북은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은 미군의 남한 주둔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28)</sup> 남한의 이러한 이해는 "정당전쟁 유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군사력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남한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남한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상호 불가침 조약('평화의 원칙')을 통한 평화공존과 원래는 한민족인 남과 북이 이념적 체제적 차이를 초월하려고 한 시도('민족대단결의 원칙')는 "평화주의 유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두환 정부 초기에 발표한 정책 중에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물론 실행은 다른 문제였다) 것들이 있다. 남북 정상 회담 제안은, 만일 성공했다면, 둘 사이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는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협상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참여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통일에 접근한 사례이다.<sup>29)</sup> 이어서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한 남북관계기본합의서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 문제 불간섭, 상호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상호 관계 유지 등을 그 방책으로 한다.<sup>30)</sup> 이러한 정책적 시도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평화적 방법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화주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집약되는데, 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밟는다. 앞에서 본 대로, 첫 번째 단계는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평화공존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공존이 남과 북 사이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 단계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민족적 유대의 회복이 자리 잡고 있다. 원칙적

27) Hakjoon Kim,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304-11.

28)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7), 63-66.

29) 김근식 외 3인, 『통일·남북관계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141-42.

30) Young Whan Kihl,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the 1980's," in Tae-Hwan Kwak, Chonghan Kim, and Hong Nack Kim (eds.),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4), 34-36.



으로 이 방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폭력적, 군사적 방법의 채택을 분명히 배제한다. 이 정책의 특기할 만한 점은 통일 운동 과정에서 민족적 유대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sup>31)</sup> 공동체적 유대의 강화라는 목표 설정은 “평화주의 유형”의 전제를 상기시킨다. “평화주의 유형”에서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창조되었고, 상호간의 사랑과 우정을 발전시키는 지향성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본다면, 민족적 유대의 추구는 남한과 북한 간의 이념적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가 도출한 두 가지 공식 합의서인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이 두 합의서의 실천은 평화공존의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후자는 한반도에서 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면에서 더욱더 그러하다.<sup>32)</sup> 이 합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적 혹은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군사력 사용의 역제를 포함하는 평화적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통일 전략으로 상호 인식하는 입장으로(“평화주의 유형”) 그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전환을 일구어내었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견지한다. 김대중 정부가 기치로 내건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입안된 것으로서, 화해와 교류협력을 참을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전진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햇볕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흡수 통일 의도의 공식적 폐기이며, 셋째는 1991년의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실행을 통한 교류와 협력 증진이다.<sup>33)</sup>

세 원칙을 기독교 평화론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해보면,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정당전쟁 유형”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남한 국민이 북한의 분명한 위협에 노출될 때, 안전 보장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안보 강화를 통해 기꺼이 그러한 위협을 제어하고자 한다. 안보의 강화가 효과적인 포용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김대중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정당전쟁 유형”과 “평화주의 유형” 사이의 어떤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념적 또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극복이나 제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원칙은 “평화주의 유형”을 반영하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평화적 방법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요컨대,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평화주의 유형”에 매우 가깝다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안보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전쟁 유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1998년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직면하여 햇볕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 서도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 2)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

정부는 남한 영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회복하기 위

31) Jinwook Choi and Sun-Song Park,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104.

32)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287-302.

33) Chung-In Moon,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hung-In Moon and David I. Steinberg (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38.

해 북한의 불의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포용과 안보는 함께 가야 한다. 기독교적 용어로, 평화주의적 정책 기조와 정당전쟁론적 기조는 병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포용 정책은 전쟁 억제를 위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군사적 대응에 앞서, 가능한 한 모든 평화적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 앞에서 본 대로, 대부분의 역대 정부들은 남북 관계를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이나 남·북간의 평화 무드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거나, 북한이 야기한 긴장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남북 관계(혹은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sup>34)</sup> 이 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력(혹은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주의가 경고하는 대로, 가장 불의한 전쟁의 이유는 권력에 대한 욕구이다. 또한 정당전쟁 전통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속 정부에게 허락하신 강제력 사용 권한은 오직 정당한 이유들, 예를 들어 평화를 유지하거나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 등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편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견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 남북 관계와 통일의 이슈를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는 시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평화공존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핵심적으로 반영하는 ‘그린 데탕트’ 정책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의미 있는 이론적 실천적 작업이 될 것이다.

### III.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응답

#### 1. ‘그린 데탕트’ 정책 개요

##### 1) 개념 해설

‘그린’(green) 곧 녹색이라는 용어는 정책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녹색(그린) 산업, 녹색(그린) 성장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융합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녹색 성장은 말 그대로 생태환경의 보존과 유지를 상징하는 ‘녹색’과 경제적 발전·확장을 지시하는 ‘성장’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내포한다. 여기서 ‘녹색’은 성장과 대비적으로 생태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상정한다.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녹색 경제를 “인간의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향상시키면서도 환경적 위험과 생태적 손실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성을 견지하는 경제”([an economy] that results in improved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while significantly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and ecological scarcities)로 정의하는데,<sup>35)</sup> 이 정의에서도 우리는 녹색이라는 개념이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성장을 그 본령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녹색화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생태환경의 파괴를 막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정책 수립과 실천을 추구함을 통해서 생태적 복원과 지속가능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비(非)그린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개발의 녹색화 곧 환경·친화적인 경제적 산업적 진보

34) 위의 논문, 41-42.

35) UNEP,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011.

를 추구하는 영역이다. 요컨대, 그린 정책은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환경 친화적 개발과 산업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다음으로 '데탕트'에 대해 살펴보자. 긴장완화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데탕트'는 정치적·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계 질서에서 서로 긴장과 갈등 속에 있던 국가들이나 지역들이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공존의 관계를 이룬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를 추구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보기가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동서냉전의 긴장과 갈등의 국제질서가 화해와 공존의 상태로 전환되는데 기여한 정책과 노력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보기는 유럽 데탕트의 원동력이 된 헬싱키 프로세스이다. 이것은 1975년 체결된 헬싱키 협약과, 군비축소와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 뿐 아니라 환경, 경제, 인권, 과학 등의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에 기초하고 있다.<sup>37)</sup>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생태환경 파괴, 기후변화, 자원 분배 및 결핍,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 임진강의 홍수라는 기후변화가 남한의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과 북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오늘날의 데탕트 개념은 무력 충돌과 같은 전통적 안보문제와 환경 파괴나 식량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문제로 야기된 국제적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고 평화적 협력과 공존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그린'과 '데탕트'를 통합한 '그린 데탕트' 정책은 한편으로 환경파괴나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적 안보문제로 발생한 긴장과 갈등에 대해 공동으로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이루며 다른 한편으로 생태환경의 복원, 기후변화에의 대응, 녹색 경제와 성장 등을 공동으로 추구함으로써 환경공동체를 성취하고 상생과 평화의 관계로 성숙시키는 정책을 지시한다. 다시 말해, '그린 데탕트'는 "현재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필수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가 역내 국가 간 교류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문제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개선함으로써 상호가 혜택을 누리는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이 경제·문화 분야는 물론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국가성장 및 통일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이자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sup>38)</sup>

요컨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린 데탕트'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이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 등의 생태환경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가며 더 나아가 남과 북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일구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책적 추구는 생태적 평화와 통일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거기로부터 남한과 북한은 민족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기반과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산림협력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의미

### (1) 주요 과제

36) 주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1.

37) 위의 책, 11-12.

38)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4), 16-17.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경제난이나 에너지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림이나 양묘 사업 지원과 같이 산림복구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과제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농업, 에너지, 군사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sup>39)</sup> ‘그린 데탕트’의 주된 정책 수행 영역으로서의 남·북간 산림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핵심 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산림의 녹색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조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둥산에 바로 나무를 심을 수는 없다. 묘목의 활착율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체토양을 공급하고 사방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예비사업이 요구된다. 산림이 황폐화된 지역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말라죽게 되는 주된 이유는 영양분과 수분을 머금어 산림의 활착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표피층이 상당 부분 유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토양의 공급은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더 이상의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공사를 실시하는 것도 조림 기반 형성을 위해 필수적 과업이 된다.

또한 조림사업의 관점에서 양묘사업의 지원이 시급하다. 양묘장 확충을 우선적으로 돕고 묘목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노동신문은 북한 전역의 수림화(樹林化)를 위해 양묘장을 북한 전역에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양묘장 조성을 위한 남북한 협력 사업은 북한이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40)</sup> 북한의 산림황폐화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양묘장을 잃고 그리하여 종묘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의 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양묘장의 증설과 양질의 종자의 개발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종자와 묘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sup>41)</sup>

둘째, 에너지원 확충을 통한 산림협력이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다. 목재는 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을 막고 전체적으로 북한 산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연료림을 조성·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42)</sup> 다만 ‘그린 데탕트’는 장기적으로 석탄이나 목재 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개발·생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돕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그 주요한 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조사 및 개발전략 수립, 북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북한 재생에너지 인력, 기술 및 장비개발’ 등의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다.<sup>43)</sup>

셋째, 산불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이다. 북한 산림황폐화의 주요인으로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365번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128km<sup>2</sup> 상당의 산림과 2만 2,600m<sup>2</sup> 면적의 나무를 잃게 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300km<sup>2</sup>에 이른다.<sup>44)</sup> 그러므로 산불 발생 시 진화 장비를 지원하거나 공동

39) 박경석 외,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13.

40) DMZ 학술원,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45.

41)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25-27.

42) 위의 책, 128.

43) 추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84.

44) UNE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의 진화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산불 방제에 협력할 수 있으며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도 장비와 기술 지원, 선제적 대응 협력, 천적자원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연구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sup>45)</sup> 특별히 병충해 방제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남한으로 확산될 수 있고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남·북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sup>46)</sup>

넷째, 산림협력과 경제적 효용 창출의 연계이다.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이란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는 말이다. 산림 복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산림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장기적으로 산림 복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과 산촌 개발을 종합적 시각에서 추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식량조달이나 에너지원으로서의 떨감 확보 등을 위한 산림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주목할 만하다.<sup>47)</sup>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소토지(떼기밭) 확대 방지와 토지보호를 위해 나무와 농산물 그리고 약초 등을 함께 재배하는 임농복합경영방식(림농복합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방식은 농·산촌 종합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확대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남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

또한 탄소배출권과 연관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통해 북한 산림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남과 북이 CDM 사업<sup>49)</sup>과 REDD+ 사업<sup>50)</sup>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서 탄소무역서기국으로 설립하고, CDM 사업의 일환으로 6개의 수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UN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북한은

---

(Pyongyang: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48.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28에서 재인용.

45)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28.

46) DMZ 학술원,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47.

47) 박경석 외,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16.

48) 위의 논문, 14.

49)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CDM의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교토의정서 3조에 의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달성을 돕는데 있다")에 규정된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한편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mitigation)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적 이익의 발생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확보하는 반면,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 곧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황(SF<sub>6</sub>) 등을 줄이는 모든 사업이 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보기들로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조림 및 재조림 사업, 폐기물 활용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CDM 사업 활용방안 및 탄소 시장」, 3-8. [http://www.energy.or.kr/up\\_load/iecenter/club00000210\\_energy/CDM\\_사업활용방안\\_및\\_탄소시장.pdf](http://www.energy.or.kr/up_load/iecenter/club00000210_energy/CDM_사업활용방안_및_탄소시장.pdf)

50)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곧 REDD+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산림탄소저장량 증진 등을 포함하는 활동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을 지향한다. 이우균 외, 「REDD+ 교재」 1권 (산림청, 2013), 1-2.

REDD+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CDM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점을 고려할 때, REDD+ 사업이 북한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CDM 사업보다는 REDD+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해당 개발도상국이 산림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고 탄소저장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남과 북이 함께 REDD+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재정을 지원하고 개도국은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업에 참여한다.<sup>51)</sup> 따라서 “남한은 북한과의 REDD+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탄소 축적 추정 등 북한의 산림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남북이 공동으로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sup>52)</sup>

## (2) 정책적 의미

‘그린 데탕트’ 정책의 의미, 특히 산림협력을 통해 이 정책이 수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첫째, 정치적 의미이다. 현 정부는 통일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중요한 이유는 남·북간의 협력 분야들 가운데 산림분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도로 이루어졌고 또 그에 따라 남·북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이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안하고 추진한다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산림분야의 협력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역의 범주를 넘어서서 전지구적 생명세계라는 거시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과 지역들이 참여할 여지는 커진다. 생태적 협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기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가들도 남·북간의 산림협력은 옹호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이런 의미에서 ‘그린 데탕트’는 전체 생명세계의 맥락 안에서 남과 북의 생태세계의 통일성과 온전성을 추구함으로써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차원의 통일 곧 ‘큰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본 기조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sup>54)</sup>

둘째, 군사적 협력의 가능성이다. 산림협력은 산림 조사를 전제한다. 또한 산림 조사는 군사적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군 전력의 많은 부분이 산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기 위해 협력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접경지역이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산림협력의 추구가 남과 북이 군사적 대화와 소통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남과 북의 산림협력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군사적 논의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sup>55)</sup>

51)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31-33.

52) 위의 책, 133.

53) 위의 책, 133-34.

54) DMZ 학술원,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1-3.

55)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35-36.

셋째, 경제적 효과이다. ‘그린 데탕트’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산림협력 사업은 북한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 사업에는 유실수와 같이 경제적 가치 창출이 용이한 수종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 에너지 상황을 고려한 연료림의 조성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경제적 유익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CDM 사업과 REDD+ 사업과 같이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에의 참여는 생태 복원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생산적인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sup>56)</sup> 특별히 산림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복합적 효과를 추구할 때, 그러한 복합효과의 산출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추장민 등은 이 점을 적시한다. “북한은 산림황폐화, 에너지 및 식량 부족, 자연재해 등 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관련 사업을 연계·통합한 패키지형 사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57)</sup>

넷째,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은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매우 이롭다. 산림의 순기능에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방지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 대기와 수질의 정화를 통한 생물종의 생존 기반 강화, 수자원과 유전자원의 보존, 교란되거나 붕괴된 생태계의 복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산림협력은 남과 북의 생명 터전인 한반도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생태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또 이 생명세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보존하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sup>58)</sup> 더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생태환경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린 데탕트’는 CDM이나 REDD+ 등 녹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거시적 안목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및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sup>59)</sup>

## 2. 평화통일 신학의 생태 신학적·윤리적 토대로서의 ‘생명의 숲’ 신학과 ‘그린 데탕트’ 평가

### 1) 창세기 2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중심적 삶 안에서 타자·지향적 실천에 힘쓰라!

창세기 2장 16-17절, “16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판).

기독교가 말하는 죄(혹은 원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창조의 원형 공간인 에덴동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첫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 먹은 행위가 원죄의 뿌리가 되었는가? 열매를 따 먹은 행동을 그 자체로 두고 원죄의 기원이라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서 물어야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 나무의 위치가 어디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위치를 특칭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자리는 ‘동산 중앙’이다.<sup>60)</sup>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추론한다. 신적 명령이 동산 중앙 곧 첫 인간의 삶의 중심 자리로부터 나왔다. 특정

56) 위의 책, 136-37.

57) 추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83.

58)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38.

59) 추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83.

60)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개역개정판).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느냐 아니냐의 개별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와 그에 대한 복종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신중심의 삶이나 자기중심적 삶이나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포하는 신학적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이 나무 이야기를 창세기 2-3 장의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첫 인간이 겪게 되는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그러한 인간 실존의 현실에 대한 종교적(혹은 신학적) 이유는 창조자 신의 존재와 명령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성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풀이한다.<sup>61)</sup> 첫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신적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신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그들의 생명과 삶의 근거로서의 동산의 참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향해 공표한 것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어거스틴(St. Augustine)의 개념으로 달리 설명해 보자. 그에 따르면 악은 처음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한,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자발적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그들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행한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또 복되게 살게 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지옥에 떨어짐을 선택하였다.”<sup>62)</sup> 악은 첫 인간의 원죄로 더불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로써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 다시 말해 ‘선을 선택하게 하는 인간 존재의 특질로서의 자유’(libertas <리베르타스>)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죄의 능력 아래서, 인간은 탐욕에 굴복한다.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 <리베룸 알비트리움>) 곧 ‘선이든 악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곡된 본능, 욕망이 자주 죄된 선택을 하도록 움직여 간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자유(libertas)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가지 자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된다. 타락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자유(libertas)가 상당 부분 상처를 입고 또 작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를 가지고 태어나며 실제로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자유의 선택을 통해 악을 행하는데, 자유의지를 누리면서 죄 없이 사는 이는 아무도 없다. 선한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는 인격의 특질이 자유(libertas)이기에, 죄는 그것의 결여나 혹은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함으로 온다.

선보다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이 상황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영혼은 무지와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태어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강제받지는 않는다.”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는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유 선택의 능력과 선한 인격의 특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죄를 치유하고.... 본성을 고칠 것이다.” 어거스틴의 자유론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란 타락으로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은 자유(libertas)의 회복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자유의 회복을 통해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궁극적 행복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모판이 되는 의지는 중간선이다.<sup>63)</sup> 중간선이 있다면 최고선을 성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최고선과의 관계에서 중간선으로서의 ‘의지’는 목적에 도달하기

61)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tr. by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4), 275-78.

62)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tr. by Anna S. Benjamin and L. H. Hackstaff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4), I.11.

63) 위의 책, II.18.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최고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사귀를 통해서 오는 궁극적인 행복이다. 중간선으로서 의지는 최고선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만남으로 얻게 되는 지고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자유이며, 무엇을 향한 선택의 자유인가?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자유에 있으며 구원론적 은혜는 자유(*libertas*)의 온전한 회복이며 그 자유는 결국 사랑을 위한 선택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인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유의 삶은 한편으로 자기중심적 삶으로부터 신중심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신중심적 삶 안에서의 타자·지향적 사랑의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창세기 2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중심적 삶 안에서 타자·지향적 실천에 힘쓰라는 명령을 내포한다.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는 것을 정책적 목적으로 삼는 ‘그린 데탕트’ 정책에 공감하면서,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해 정부나 민간 주도의 다양한 형태의 실천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자·지향적 사랑의 삶의 구현이다. 황폐하게 된 북한의 산림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동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산림의 녹화 사업은 1990년대부터 민간단체(시민단체), 정부, 지자체, 국제 NGO,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행해 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온정리에 나무 500 그루와 잣나무 묘목 100 그루를(2003-2004년) 그리고 새천년생명운동은 5백만 그루의 묘목을(2002-2006년) 지원하였고, 미래의 숲은 소나무와 밤나무를 각각 2만 5천 그루씩 만경대 뒷산, 평양 근교 대성산 등에 심었다(200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녘 묘목지원 및 남북공동 나무심기’ 행사에서 개성 선죽교 공원에 묘목 18만 그루를(2006년) 그리고 겨례의 숲은 평양과 금강산에 소나무나 잣나무 등의 묘목 100만 그루 정도를 조림하였다(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복숭아와 자두나무 3만 그루를(2005년) 그리고 경기도가 50만 그루를(2008년) 지원하였고, 산림청은 개성과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전역에 나무심기 사업을 확장해 갈 것임을 발표하였다(2013년). 민간단체,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 베이징 사무소는 북한 국립과학원과 협력하여 산림 농업 특별 연수를 실시하였고, 평안남도 신양군에서는 산림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십자사 나무심기 사업 기념회’도 개최하였다(2012년).<sup>64)</sup> 이 모든 사업들은 북한 산림 복원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주체들이 북한을 위해 수행한 이타적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회와 신자들도 이같은 정책 수립과 실천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참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하여, 신중심적 삶에 뿌리를 둔 이타적 삶을 역사적으로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별히 하나된 조국과 생태적으로 복원된 한반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다 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의 문제에까지 우리의 관심을 확대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세대를 초월하는 이타적 삶의 실현인 것이다.

## 2) 에스겔 37장의 ‘나무 막대기’: 갈라지고 찢긴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일군이 되라!

에스겔 37장 16-17절,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개역개정판).

64) DMZ 학술원,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40-42.

16-17절 앞에 나오는 성경 본문은 널리 알려진 본문이다. 이른바 ‘마른 뼈 환상’이다. 에스겔 37장 1-14절에 기술되고 있는 이 환상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말씀의 과업을 맡기는데, 마른 뼈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항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시체가 되고 시체가 썩어 이제 마른 뼈만 남은, 그것도 단일 생명의 뼈가 아니라 메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향해 전하는 것이다. 에스겔은 그대로 했고,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 골짜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무수히 많은 뼈들에 힘줄, 살, 가죽이 차례로 붙고, 마지막으로(결정적으로) 사방에서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생기(*ruḥ* <루아흐>)가 공급되자 마른 뼈가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난다.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무리로 힘차게 일어서게 된 것이다. 참혹한 역사적 곤궁과 절박한 정신적 종교적 위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며 그들이 꿈꾸어야 할 이상이요 비전인 것이다.

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와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6-17절에서 찾아야 한다. 에스겔 37장 17절의 한 대목에 주목하라. “네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갈라진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누구의 손 안에서인가? 너의 손, 에스겔의 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손 안에서 하나될 것이다. 다시 말해, 마른 뼈를 살려내어 강인한 생명(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와 정상적 질서를 이룰 것이다. 창세기 1장 창조의 하나님의 영(*ruḥ* <루아흐>)은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들을 생명의 무리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기제인 ‘생기’와 동일한 것이다. ‘태초의 창조’의 원초적 상황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 원초적 상황을 바꾸어 신적 평화와 질서를 불러일으킨다. 창조 때의 <루아흐>는 에스겔 37장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생기’와 동일한 <루아흐>이며, 그 ‘영’의 본질은 평화의 세상을 창출하는 것이다.<sup>65)</sup>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들의 삶의 본질은 그 영의 본질에 부합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에스겔 37장의 ‘나무 막대기’는 갈라지고 찢긴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일군이 되어 살 것을 명령한다. 이 ‘나무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은 평화(*šālôm* <샬롬>)를 이루는 것임을 밝히신다. 갈라지고 찢기고, 그래서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정치사회적 관계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생각한다. 오늘 이 시대와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과업은 무엇인가? 하나로 부르셨지만, 둘로 갈라져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민족 분단의 현장 속에 들어가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신앙의 공동체를 포함해서 인류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을 기독교적으로 - 특별히 에스겔 ‘나무 막대기’ 신학의 관점에서 - 기술한다면, 그것은 인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공존·공생의 환경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린 데탕트’ 정책의 구현과 이를 위한 교회의 참여는 에스겔의 ‘나무 막대기’에 담긴 사회적 함의가 한반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 할 것이다.<sup>66)</sup>

65) Bruce Vawter and Leslie J. Hoppe, *Ezekiel: A New Heart* (Grand Rapids: Eerdmans, 1991), 166-67.

66)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은 성과 속을 포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하

3) 로마서 11장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시는 신적 역사에 충실하게 응답하라!

로마서 11장 23-24절,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개역개정판).

여기서 참감람나무(올리브나무)는 바울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이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이들로 생각했던 이방인을 가리킨다. 돌감람나무(*agrielaios* <아그리엘라이오스>)는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로서 적은 양의 열매를 산출하며 그 질도 썩 좋지 않다. 이에 반해 참감람나무(*kallielaios* <칼리엘라이오스>)는 정원 등에 심겨져 사람의 돌봄과 경작 가운데 많은 양의 질 좋은 열매를 맺는 수종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 둘 사이의 접붙임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핵심 메시지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참감람나무에서 가지들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접붙인 바 된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의 범위를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하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총체적 거시적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확고한 증언이다.

이 접붙임을 바로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본성에 거슬러’라는 표현이다.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접붙임은 자연 질서와는 다르거나 충돌된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not natural)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 접붙임을 행하시는 주체는 자연과 자연의 질

---

나님의 섭리적 의도를 존중한다. 해방 이후 많은 교회들은 정부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을 존중한다. 그들의 반대는 남한의 동료 시민들에 대한 사랑 곧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고통 받거나 고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을 존중하면서 동료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 성취까지도 하나님 섭리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들 수 있다. 1990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본부가 북한에 쌀 1만 가마를 지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쌀 나누기 운동은 단발성 대북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북한 돕기’ 운동이라는 기독교 통일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 9월에는 한국 교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연합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을 창립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의 모형으로서의 북한 돕기 운동의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방문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과 다양한 조사 보고서들을 통해 북한 동포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곤궁들이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의 ‘북한 돕기’ 운동은 1995년 북한의 수해로 인한 식량난 이후 다양한 교회 조직을 대거 양산했을 뿐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초기의 ‘쌀 나누기’ 차원에서 벗어나 탈북자, 식량, 의료, 결식 아동, 농업 지원 문제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었다”(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 서울: 그리스심, 2003, 352-54).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남한 기독교의 생태환경적 통일 실천은 ‘그린 데탕트’와 친화적이며, 정부와 교회를 비롯한 민간의 협력은 ‘북한 돕기’ 운동의 역사적 전개라는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생태환경의 복원과 보존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북한 돕기 운동의 확장이라는 교회사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 기독교 통일 운동의 한 패러다임으로서의 ‘북한 돕기’의 역사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기독교통일운동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장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접붙임의 사건을 자연이나 본능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이나 본능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sup>67)</sup>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그리하여 인생과 세계와 역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이상은 자연적 질서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질적이고 질적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연결되는 ‘자연을 뛰어넘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향한 큰 진보를 얻게 된 것이다.

구약성경이 증언하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본문은 이사야 11장이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 6-9, 개역개정판). 자연 상태에서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표범이나 사자와 같은 야수들의 사냥감이지, 함께 살고 눕고 먹으면서 공존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공존 불가의 생명들이 화목하게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성경의 증언이 가리키는 이상향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그 공동체들 안에 이루어지는 ‘보편적 평화’의 세상이다.<sup>68)</sup> 자연 상태에서 어린 아이는 ‘겁 없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아이에게 독사는 더 이상 경계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손을 건네고 접촉하고 소통하며 함께 살 존재’가 된다. 역시 이러한 평화의 세상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전제한다. 인류 공동체가 거부할 수 없는 자연 질서(혹은 본성적 질서)로 규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이와 차별 그리고 대립의 관계들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1장의 ‘접붙임’과 같은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로마서 11장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시는 신적 역사에 충실하게 응답할 것을 말씀하신다. 기독교는 원수 사랑을 명령하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현실적 인식이 오히려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인류 역사에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수 사랑을 명령하며, 어찌 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연 질서’와는 ‘다른’(혹은 ‘초월하는’)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살핀 대로, 로마서 11장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이와 차별 그리고 대립의 관계들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질서가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현상이며 또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증언한다. 삼림협력을 그 주된 정책적 목표로 삼는 ‘그린 데탕트’ 정책과 같은 녹색 정책들이 활성화되고 구체적 결

67) 던(James D. G. Dunn)은 이러한 해석을 위한 의미 있는 주석적 풀이를 내놓는다. “‘본성을 거슬러’(kata phusin <카타 뤼신>)와 ‘본성을 따라’(para phusin <파라 뤼신>)의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접붙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기보다는 다른 수종의 가치를 접붙였음에도 성공적으로 생명이 연장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많은 청중들이 다소 의아해 하겠지만) 알리는 데 초점을 둔다.” Dunn, *Romans 9-16* (Waco, Tex.: Word Books, 1988), 666.

68) Otto Kaiser, *Isaiah 1-12: A Commentary*, tr. by John Bowden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259-61.

실들을 맺어갈 때, 한반도 전체에 울창한 하나의 숲을 일구어 남과 북의 백두대간을 하나로 만들어 가고 또 ‘접붙임’의 역사로 도무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존재들이 공존하며 ‘보편적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성경의 비전을 이 한반도에 이루어 갈 것을 확신한다.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한편으로 산림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의 수행은 자연스럽게 남·북간의 군사적 소통과 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산림 복원을 통한 한반도 전체의 생태적 온전성의 추구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의 통일을 포함하는 ‘작은 통일’로부터 정치적 차원의 통일을 뜻하는 ‘큰 통일’에로의 진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정책들에 동의하고 또 실천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환경 분야 협력으로 화합의 씨앗을 심고 그리하여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통일의 분위기를 광범위하게 또 힘차게 조성해 가게 될 것이다.

#### 4) 열왕기상 4장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게 하라!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개역개정판).

이 구절은 솔로몬 치하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루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삶의 조건은 결정적이다. 이 시대를 설명하는 주된 특징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69)</sup> 먼저, 솔로몬의 치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평화와 행복의 삶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었던 점이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경계의 최남단과 최북단을 포괄하는 범위를 찾을 수 있다. 한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남과 북이 그리고 동과 서가 차이나 차별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렸다는 말이다. 둘째, 성경적 태평성대의 중요한 내용은 평화이다. 최소한의 선에서 전쟁의 부재이다. ‘평안히’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충분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상해나 쇠락의 위기 없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특별히 전쟁 등의 국가적 재난 없이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 상황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보건대, 전쟁과 같은 극한의 갈등이나 긴장이 없이 평화로운 생존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다. 셋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행복한 삶은 경제적 안정을 내포한다.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물적 기반이기에, 이 값진 산물의 충분한 공급은 행복한 삶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반대로 무화과와 포도 생산의 감소는 이스라엘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증언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닥친 재앙이나 위기는 이스라엘의 물질적 삶의 토대의 붕괴에 상응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성경의 증언들을 찾을 수 있다.<sup>70)</sup>

열왕기상 4장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부터 ‘그린 데탕트’ 정책을 생각해 보자. 이 정책은 유실수림과 연료림 조성, 소득연계형 임농복합 산업 육성, 탄소배출권과 연관된 경제협력 등을 추구하여 북한 동포들의 물질적 삶의 토대를 세우고 또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남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모든 백성이 생명의

69) Simon J. DeVries, *1 Kings* (Waco, Tex.: Word Books, 1985), 72-73.

70)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예레미야 5장 17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호세아 2장 12절).

안전과 생존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고 평안히 살아가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상을 이 한반도에 이루어 가는 데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추진 등 남과 북의 경제적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국제사회에 남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sup>71)</sup> 그리하여 세계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경제 지형의 확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우주적 생태적 회복의 이상을 구현하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22장 1-2절,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개역개정판).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경전인 성경의 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말론적 문헌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곧 요한계시록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바로서의 이상향에 대한 증언이다.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속적으로 향유되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그야말로 총체적이다.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포괄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온전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며, ‘만국’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정치사회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참된 평화의 세상이 구현될 것이며, ‘만물’ 곧 ‘태초의 창조’를 통한 신적 창조의 모든 결과물들이 피조물로서 갖는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자연 질서’의 왜곡과 파괴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멸종의 위기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구원의 이상향의 주인공은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생명의 체계를 형성하는 전체 창조세계가 구원의 이상향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자 갈망한다는 로마서 8장(21-22절)의 증언은 옳으며 궁극적 해방과 종말론적 완성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 경청해야 할 바이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문법적으로 집합 명사로 보아야 한다.<sup>72)</sup> 곧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로 가득한 숲, ‘생명의 숲’인 것이다. 생명의 강을 따라 또 생명의 강과 더불어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을 비롯한 탄식하고 고통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충만한 생명으로 살리고 또 살아있게 하는 총체적 생명 체계인 것이다.

신자들이 일상의 삶과 역사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변혁적인’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칼뱅은 앞으로 임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묵상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간과 공간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불어 이루어질 타계적 공간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 세상의 삶이란 그 자체로 판단하면 괴롭고 풍파가 많고 온갖 면에서 부패해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도 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게 덧없고 허망하며 또한 악과 뒤섞여 있어서 해롭다

71)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133.

72) Jürgen Roloff, *The Revelation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1993), 246.

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올바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구하고 소망을 둘 것이 오로지 투쟁(분투 노력)밖에는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해야 한다고 결론지를 수밖에 없다.”<sup>73)</sup> 마지막 날 구원받은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부활한’ 몸이다. 여기서 담긴 중요한 함의는 이 땅의 몸과 마지막 날 입게 될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은 그 본질에 있어 같고, 그 질에서 있어서는 다르다.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은 옛 몸에 견주어 단순히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탁월하다. 요컨대, 둘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부활의 종말론적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몸’의 완성은 이 땅의 몸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칼뱅의 ‘몸’ 사상은 우주론적으로 확장되는데, 마지막 날 이루어질 세계의 완성은 현세계의 존재론적 현실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sup>74)</sup> 다시 말해, 칼뱅의 종말론은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종말에 관한 논의도 포괄하며, 칼뱅에게 우주의 종말은 세계 전체의 완성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계의 궁극적 완성이다.<sup>75)</sup>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궁극적 완성이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총체성 안에서 온 우주와 전체 생명 세계가 포함되듯이, 종말론적 완성을 바라보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오늘날 생태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또 신앙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죄를 ‘대속을 필요로 하는 범법보다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sup>76)</sup>으로 이해하는 웨슬리(John Wesley)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몰트만은 피조세계의 구원은 병자들과 고통 받는 세계에 치유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오늘을 위한 성화’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생명의 신성함과 창조의 신적 신비에 대한 변호,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에 반하는 폭력에 대한 부정 그리고 생명 세계의 조화와 공존 추구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sup>77)</sup> 이러한 가치들

73) John Calvi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중)』 III.9.1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233.

74) 이형기, 『역사속의 종말론: 교부신학으로부터 20세기 에큐메니즘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5-92. 이 점에 대해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도 유사한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전 15:39).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본질을 서로 동일하나 그 질에 있어서는 서로 같지 않고(39절), 또한 모든 광명체가 동일한 물질로 되어 있으나 그 찬란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것처럼(41절), 우리 몸의 본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지만 거기에 변화가 생겨서 그 상태가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51-52절).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부패하는 성질을 가진 그 몸이 썩어 없어진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53-54절).” John Calvi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중)』, III.25.8, 620.

75) 최윤배, 『칼뱅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659. “신자들이 죽음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은 옷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옷을 입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고후 5:2-3) 바울은 적절하게 가르친다. 짐승들과 나무나 돌 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의 현존 상태의 허무함을 느끼고 부활이 있을 마지막 날을 동경하며, 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허무성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한다(롬 8:19 이하)”(칼뱅, 『기독교강요』, III.9.5). “그리고 신자들이 이 경주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동반자라고 한다. 그는 도처에서 형태도 없는 폐허를 봄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한다(롬 8:19). 아담의 타락이 자연의 완전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후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받게 된 속박은 그들에게 중대한 슬픔이 되었다. 그들에게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자연히 타락 전의 완전한 상태를 동경한다”(칼뱅, 『기독교강요』, III.25.2). 최윤배, 『칼뱅신학 입문』, 659에서 재인용.

76)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tr. by Margaret Kohl, *The Spirit of Lif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164.

77) 위의 책, 171-73.

을 내포하는 성화의 틀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명을 형성해 가는 능동적 주체자로 부름 받는다. 성화는 제자도와 성령 안에서의 삶에로의 부르심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인격의 선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신자들에 의한 삶의 성화는 하나님께 상응하는 생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로써 목적이 분명해진다. 인간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화목과 같이 간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와 더불어 간다.”<sup>78)</sup>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로부터 얻는 신학적 윤리적 통찰의 빛에서 ‘그린 데탕트’를 평가해 보자. 한반도는 생태공동체로서 하나라는 명제는 자명하다. 생태적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생명 체계(혹은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나의 생명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숲이 사라져 생태환경의 심각한 훼손으로 귀결되면 그 부정적 결과가 남한의 환경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반대의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기적이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는 매우 중요한 생태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생태계는 한반도를 포괄하는 세계적 혹은 우주적 생명 체계 ‘안에’ 또 ‘더불어’ 존재한다. 녹색 한반도의 추구는 단순히 한반도의 생태 복원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 안목에서 온 세계의 녹색화에 이바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 데탕트’ 정책의 생태적 의미를 신학적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죽음의 위기 앞에 고통 하는 생명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생명나무(혹은 숲)’ 프로젝트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만물을 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미리 앞당겨, 좁게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넓게는 전지구적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복원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총체적 생명(생태) 실천을 내포하는 정책적 시도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린 데탕트’가 주된 정책적 과제로 삼는 산림협력의 추구는 “남과 북의 생명 터전인 한반도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생태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또 이 생명세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보존하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생태환경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IV. 맺는 말

평화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남한과 북한이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 이전에 둘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민족적 유대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 관계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에도 그러한 도발에 단호하게 응답하면서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점점 넓혀 가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민간 부분의 교류에까지 확대해 나갈 때,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 데탕트’ 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응답과 정당화 그리고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참여는 남·북간의 교류를 위한 실천으로서 민족적 유대의 강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목표에

78) 위의 책, 164.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그린 데탕트’는 한반도 전체 생명 체계 안에 정상적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는 ‘생태 복원’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신음하는 북한의 무수한 ‘생명들’의 위기에 대한 시급하면서도 적절한 응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산림을 살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살려내며 남과 북을 포괄하는 생명 세계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한 부분으로 품고 있는 세계적(혹은 우주적) 생명 체계를 좀 더 온전한 생명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동료 시민들과 협력·연대하여 한반도 안에 정치사회적 생태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근식 외 3인. 『통일·남북관계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박경석 외.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산림정책이슈」 제5호(2013/6).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13.

손기웅 외.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 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2010/12), 223-268.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주도홍.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추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DMZ 학술원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Translated by Anna S. Benjamin and L. H. Hackstaff.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4.

Bainton, Roland H.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 Historical Survey and Critical Re-evaluation*. New York/ Nashville: Abingdon, 1960.

Cahill, Lisa Sowle. *Love Your Enemies: Discipleship,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 Minneapolis: Fortress, 199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Edit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Choi, Jinwook and Park, Sun-Song.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Seou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7.
- DeVries, Simon J. *1 Kings*. Waco, Tex.: Word Books, 1985.
- Erasmus, Desiderius. *The Complaint of Peace*. In *The Essential Erasmus*. Translated by John P. Dolan. New York: Mentor-Omega Books, 1964.
- Erasmus, Desiderius. *Dulce bellum in expetis*. In *The 'Adages' of Erasmus*. Translated by Margaret M. Phillip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 Johnson, James Turner.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Kaiser, Otto. *Isaiah 1-12: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Bowden.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 Kim, Hakjoon.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 Koh, B. C.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The Prospects for Korean Unification*. Edited by Jay Speakman and Chae-Jin Lee. Claremont, Calif.: The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1993.
- Kwak, Tae-Hwan, Kim, Chonghan and Kim, Hong Nack, eds.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84.
- Luther, Martin. *Sermons o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In *Luther's Works* 30.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 Luther, Martin. "On War Against the Turk." In *Luther's Works* 46.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 Luther, Martin.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In *Luther's Works* 46.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Luther, Martin. "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 In *Luther's Works*. Vol. 46.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5.

Moltmann, Jürgen. *Der Geist des Lebens*, Translated. by Margaret Kohl. *The Spirit of Lif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Moon, Chung-In and Steinberg, David I., eds.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Peters, E., ed. *The First Crusade: The Chronicle of Fulcher of Chartres and Other Source Material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Roloff, Jürgen. *The Revelation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1993.

Vawter, Bruce and Hoppe, Leslie J. *Ezekiel: A New Heart*. Grand Rapids: Eerdmans, 1991.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4.